

가다랑어 어업 창시 공로 기념비

자마미지마 섬의 가다랑어 어업을 기념해 만들어진 이 비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키나와 지역에서 처음으로 가다랑어 어업을 시작한 이들은 게라마 제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마미에서 태어나 촌장까지 지낸 마쓰다 와사부로(1853~1923)가 1895 년에 규슈 남부의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에서 가다랑어잡이 어부를 초청하여 지역 어부를 훈련시키고 1901 년에 배를 손에 넣어 섬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여 1910 년대에는 가다랑어잡이 배 11 척, 10 조합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섬의 남자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했고 한편 여자들은 국물을 내는 가쓰오부시(가다랑어 살을 삶고 훈연하여 건조한 식품)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가다랑어잡이는 섬 주민들의 부를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마미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수 있었지만, 오키나와의 다른 지역에서 이는 당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마쓰다 와사부로도 사업을 계속 확장하여 가쓰오부시는 오키나와에서 설탕에 뒤이어 두 번째로 큰 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쇼와 시대(1926~1989) 초기에 흉어가 이어지고, 태풍 피해, 세계 공황에 따른 대폭락 등으로 인해 사업운이 갑자기 쇠퇴했습니다. 자마미의 어부들은 태평양 제도(팔라우, 북마리아나 제도, 미크로네시아, 마셜 제도)까지 어장을 확대하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2 차 세계대전 때 어선이 징용되고 미군의 공습 때문에 어선이 모두 불타버려 자마미의 가다랑어 어업은 중단되었다가 이전보다 큰 어선으로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배를 조종할 인원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은 1976 년에 끝을 맞았습니다.

이 기념비가 만들어진 해는 1922 년입니다. 가다랑어 어업은 그때도 아직 전성기였습니다. 정면에는 ‘가다랑어 어업 창시 공로 기념비’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자마미의 가다랑어 어업 역사, 우측면에는 마쓰다 와사부로를 비롯하여 가다랑어 어업을 위해 힘을 쏟은 사람들, 좌측면에는 기념비 설립 발기인(자금을 제공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